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산사태 재난 사전대비 총력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1일 경북 포항시 일원의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장과 계곡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하 피해목) 집중지역 등에서 산사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산림청, 경상북도, 포항시 관계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석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방제현장은 방제과정에서 예방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종이 자리잡기 전에는 사면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권 계곡부에 일부 남아있는 피해목은 호우나 강풍 시 쓰러져 토석류를 유발하는 등 산사태 재난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현장의 산사태 안정성에 대한 잠정 분석(사면안정해석 등)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주민대피를 위한 대피소 지정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산림청에서는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에 대해서는 방제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개정하고 우기 전 집중 제거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실시해왔다.

또한, 토양함수량과 12·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주민대피 판단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수립과 주민대피 상황판단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극한 강우 등이 반복되는 여름철 기상 여건에 대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주변의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인근 주민의 대피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사태 방지과	책임자	과 장	정종우	(042-481-4270)
		담당자	사무관	박봉관	(042-481-8844)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과	책임자	과 장	이홍대	(042-481-4174)
		담당자	사무관	정은상	(042-481-4064)

